



청렴 이정표(차량용 방향제)

이주미

기획 의도

소나무의 늘 푸른 모습처럼 언제나 울곧아야 한다는 의미로 소나무를 청렴의 상징으로 활용했습니다. 잘못된 선택은 쉽게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'일탈주의' 문구를 활용했으며, 한 번 빠지면 부정부패라는 막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'우회로 없음'을 더했습니다. 청렴으로 가는 길은 유일한 바른 길이라는 취지로 길 이름은 순우리말 '바른길'로 정했습니다. 향은 솔잎향 아로마오일을 기본으로 하여 졸음운전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, 개인 취향에 따라 편백나무향, 녹차향 등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